MARILYN MASON

ORGAN RECITAL

메릴린 메이슨

파이프오르간 초청 연주회

1992년 8월 24일(월) 오후 7:30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주최/세종예술기획 • 후원/한국오르가니스트협회
협찬/ 알렌오르간한국총판

PROFILE

메릴린 메이슨 박사는 오르가니스트, 교수, 학자, 작품위촉 및 편집자로서 세계적으로 높은 명성을 얻고 있다. 그는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Alva에서 출생하였고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학사, 석사를 마친후 프랑스에서 Nadia Boulanger, Maurice Duruflé와 공부하였으며 Union Theological Seminary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1946년 부터 오르간의 명문인 University of Michigan의 오르간 주임교수로 또 지난 30년간 같은 학교의 오르간 과장을 역임하면서 수많은 제자를 가르치는 가운데에도 해마다 세계를 여행하며 40여회의 오르간 독주회를 갖는 매우 분주한 오르가니스트이다.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Concert Organist로서, 미국, 유럽뿐 아니라 남미, 아프리카 등지에서 수많은 연주회를 개최하여 절찬을 받고 있으며 특히 영국 Westminster Abbey의 오랜 전통을 깨고 연주한 최초의 여류 오르가니스트이다. 독주자로서 Detroit교향악단, Philadelphia교향악단, Paris실내악단, Brazil 교향악단 등과 협연하였으며 20여장의 레코드를 출반하였는데 그중에도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 뉴욕의 링컨센터에서의 연주등은 미국의 Columbia와 Musical Heritage Society를 통해 소개되었다.

그는 특별히 현대 오르간 음악에 깊은 관심을 보여 그동안 50여곡의 오르간 작품을 작곡.위촉하였으며 초연하였다. 또한 음악편집자로서 많은 작품을 H. W. Gray 출판사등에서 출판하였다.

학자로서 그는 수많은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특히 유럽 각 지역의 역사적인 오르간의 구조와 음색을 연구하는 Study Tour를 매년 조직하여 인솔하고 있다.

1972년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최우수 교수에게 주어지는 「Distinguished Faculty Achievement Award」상을 수상하였으며 1988년에는 미국 오르가니스트 협회에서 「올해의 연주가」로 선정되었다.

그는 미국, 유럽등지의 권위있는 오르간 콩쿨의 심사위원으로 활약하며 해마다 수없이 많은 강의와 매스터 클래스에 초빙되고 있다. 이번 한국 공연에서는 그녀가 위촉한 곡이 두곡 한국초연되며 8월 20일(목), 21(금)에는 이화여대 김영의 홀에서 열린 한국 오르가니스트협회 주최 전국 오르가니스트 대회에 특별강사로 초빙되어 강연과 매스터 클래스를 가진 바 있다.

메이슨 박사는 곽동순(DMA), 오자경(DMA)의 존경하는 은사이기도 하다.

PROGRAM

Juan Cabanilles (1644–1712)
Batalla Imperial

J. S. Bach (1685–1750)
Toccata, Adagio and Fugue in C, BWV 564

Le Clerc (fl. 18th cent.)
Magnificat du huitieme ton en sol Majeur
Plein Jeu
Duo
Jeu de Clarion
Flutte
Musette
Grand Jeu

César Franck (1822–1890)
Chorale in B minor

Alexandre Guilmant (1837–1911)
Marche sur un thème de Handel, Op. 15, No. 12

— INTERMISSION —

American Organ Music

Leo Sowerby (1895–1968)
Pageant

Michael McCabe (b. 1941)
Flourish and Chorale(1987) *

William Bolcom (b. 1938)
Prelude on "Sweet Hour of Prayer" (1984) *

John Knowles Paine (1839–1906)
Concert Variations on the Austrian Hymn

* 메이슨 박사의 위촉 작품, 한국 초연.

PROGRAM NOTE

Juan Cabanilles (1644-1712)
Batalla Imperial

존 카바니예
왕실의 전투

바하이전의 옛 오르간 음악으로서는 지역별로 여러 계통이 있는데, 오늘 연주는 17세기 스페인 음악부터 시작이된다. 16~18세기동안 스페인에서는 전투(Battle)라는 제목이 부쳐진 곡이 많이 작곡되었다. 이러한 곡은 표제음악으로 팡파레나 북소리와 같이 전투에서 일어나는 소란하고 혼잡한 장면을 묘사한다.

J. S. Bach (1685-1750)
Toccata, Adagio and Fugue in C, BWV 564

요한 세바스챤 바흐
토카타와 푸가 다장조

18세기 전반의 요한 세바스챤 바흐는 바로크 음악을 집대성한 오르간음악의 최고영봉이다. 바흐의 28곡의 큰 규모 전주곡과 푸가중 이곡은 세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점이 매우 특이하다. 이 세 악장은 각기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서로 잘 조화를 이룬다. 처음 Toccata는 질문과 응답이 번갈아 대화로 들리는 이태리풍의 영향을 찾아볼수 있는 곡이며, 다시금 고조되는 Fugue 악장과의 사이에 조용하고 명상적인 Adagio가 매우 대조적이다. 바흐의 오르간 음악을 들으면서 괴테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해진다.「바흐의 음악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기전에 느끼셨을지도 모르는 그 영원한 화현을 가지고 노래를 주고 받는것 같다」

Le Clerc (fl. 18th cent.)
Magnificat du huitieme ton en sol Majeur

르클러크
성모 마리아의 찬미

Le Clerc은 18세기에 프랑스에서 활동한 음악가인데, 이 음악은 대영박물관 소장의 악보를 메릴린 메이슨 박사가 발굴, 편집하여 직접 연주하게 된다. 성모 마리아의 찬미인 Magnificat는 누가복음에 실려있다. 초기에는 가사가 전부 노래로 불리워 졌으나 17세기부터 노래와 오르간이 각절을 번갈아 연주하는 관례가 생겼다. 이 찬미는 12절로 되어있기 때문에 작곡가들은 그중 6절을 오르간곡으로 작곡하였다. Le Clerc은 그의 선율의 소재로 교회선법중 제 8선법 (eighth psalm tone)을 사용하였으며 당시 프랑스 음악의 특징인 다양한 음색배합을 각절의 제목으로 부쳤다.

PROGRAM NOTE

Magnificat

누가복음 1장

1. Magnificat anima mea Dominum.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46)

2. Et exultavit spiritus meus, in Deo salutari meo.
내 구주 하느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이 마음 설레입니다. (47)

3. Quia respexit humilitatem ancillae suae, ecce enim ex hoc beatam me dicent.
주께서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십시요. 이제부터 나를 복되다 할 것입니다.
Omnes generationes.
세세토록. (48)

4. Quia fecit mihi magna qui potens est. et sanctum nomen ejus.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해주신 덕분, 주님은 거룩하신 분. (49)

5. Et misericordia a progenie in progenies timentibus eum.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대대로 자비를 베푸십니다. (50)

6. Fecit potentiam in bracchio suo dispersit, superbos mente cordis sui.
주님은 전능하신 팔을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51)

7. Deposuit potentes de sede, et exaltavit humiles.
권세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보잘 것 없는 이들을 높이셨으며 (52)

8. Esurientes implevit bonis, et divites dimisit inanes.
배고픈 사람은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요한 사람은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습니다. (53)

9. Suscepit lsrael puerum suum recordatus misericordiae suae.
주님은 약속하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54)

10. Sicut locutus est ad patres nostros, Abraham et semini ejus in saecula.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자비를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베푸실 것입니다.
(55)

11. Gloria Patri, Filio et Spiritui sancto !
영광이 성부, 성자, 성령께 !

12. Sicut erat in princio et nunc, et semper, et in saecula saeculorum Amen.
태초로 부터 또 지금까지 또 영원무궁히 있을지어다. 아멘.

※ 1, 3, 5, 7, 9, 11절은 대한 성공회 성 니콜라 소년 합창단 (지도 : 윤 태빈 선생)이 노래합니다.

PROGRAM NOTE

César Franck (1822-1890)
Chorale in B minor

세잘 프랑크
코랄 나단조

벨지움 태생인 세잘 프랑크는 그의 작품뿐아니라 그의 가르침이나 위대한 영향력으로서 19세기 후반 프랑스 오르간악파의 시조가 되었다. 그는 1885년 파리의 Ste. Clotilde 성당의 오르가니스트가 되었고, 교회의 직분에 충실했으며, 파리 Conservatoire 에서 가르치는 일에도 충실하여, 조용히 맡은 책임을 다하는 매우 성실한 교회음악인이었다. 그러나 그의 음악은 매우 독창적이고 감정적이며 호소력이 뛰어난것으로, 19세기 프랑스악파의 시발점이 된것이다. 그의 생애의 마지막해인 1890년 작곡된 마지막 작품인 「Trois Chorals」(세개의 코라알)중에서 두번째 곡인 B 단조 코라알은 그가 작곡한 매우 아름다운 코라알 주제가 처음 페달에서 제시되며 변주곡 형식으로 전개되는 환상곡이다.

Alexandre Guilmant (1837-1911)
Marche sur un thème de Handel, Op. 15, No. 12

알렉산더 질망
헨델 주제에 의한 행진곡

길망은 매우 뛰어난 프랑스의 음악가, 작곡가이며 스승이었다. 그는 15세때 Bologne의 Saint Joseph 성당의 오르가니스트로 시작하여 1871년에는 파리의 Trinité 성당의 오르가니스트로 임명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Charles Bordes, Vincent d'Indy와 함께 Schola Cantorum을 설립하였고 오르간 교수가 되었으며 파리 Conservatoire 에서도 오르간을 가르쳤다. 그의 작품은 대부분 오르간곡으로서 8개의 소나타와 그 외에 교회 예배용으로 많은 작품을 남겼다. 이곡은 헨델의 메시아 중에 나오는 "너의 머리를 들라"를 주제로한 행진곡으로 당시 가장 인기있던 그의 작품이다.

American Organ Music

Leo Sowerby (1895-1968)
Pageant

레오 사우어비
행렬

Sowerby는 1895년 5월 1일 미국 미쉬간주의 Grand Rapids에서 영국계 아버지와 카나다계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1918년 Chicago의 American Conservatory를 졸업했으며 로마대상 (Prix de Rome)을 수상한 첫 미국인으로 3년동안 (1921-24) 이태리 로마에서 지냈다. 그는 오랫동안 American Conservatory의 교수를 지냈고 Chicago의 St.James 성공회 성당에서 오르가니스트겸 성가대 지휘자로

PROGRAM NOTE

활약했다. 그후 그의 말년까지 Washington D.C.의 National Cathedral에 부속되어 있는 교회음악가 협회의 회장을 역임했다. 그는 많은 작품을 작곡하였으며 수많은 제자들에게 또 미국 오르간계에 끼친 영향으로 미루어 최고의 미국 오르간 작곡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곡은 그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자유로운 변주곡 형식으로 되어있으며 특히 페달 독주로 시작하여 매우 고도의 페달기교를 요하는 난곡이다.

Michael McCabe (b. 1941)
Flourish and Chorale(1987) *

마이클 멕케브
코랄 팡파레

메릴린 메이슨 위촉 작품 • 작곡가는 현재 미국 Nebraska주의 Omaha에 있는 St. Barnabas 성공회의 오르가니스트겸 성가대 지휘자이며 Sowerby의 제자였다.

William Bolcom (b. 1938)
Prelude on "Sweet Hour of Prayer" (1984) *

윌리암 볼콤
찬송 "내 기도하는 한시간" 을 주제로 한 전주곡

메릴린 메이슨 위촉 작품 • 작곡가는 현재 University of Michigan작곡 교수이다. 그는 매우 많은 오르간작품을 작곡하였으며 그의 작품은 여러 스타일의 매우 다양한 작곡기법을 보여준다. 그는 여러 상을 수상하였는데 특히 1988년에는 음악부문에서 Pulitzer상을 수상하였다. 이곡은 찬송 "내 기도하는 한시간" (통482장)을 주제로한 전주곡이다.

John Knowles Paine (1839-1906)
Cencert Variations on the Austrian Hymn

존 놀즈 페인
찬송 "시온성과 같은 교회" 를 주제로한 연주회용 변주곡

Paine은 미국 Maine주에서 독일계통의 스승인 Karl-August Haupt와 오르간, 피아노, 대위법을 공부하였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 유럽에서 3년간 공부하게 되었다, 1860년대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을때 그의 취향이나 스타일은 매우 독일화되었으며 그는 Boston에서 주로 많은 오르간 독주회와 강연회를 가졌다. 그는 1862년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Harvard University에 음악교수로 임명되었다. 이 작품은 찬송 "시온성과 같은 교회" (통245장)를 주제로한 연주회용 변주곡으로 처음에 제시된 주제가 단조를 포함한 여러 스타일의 변주를 거쳐 마지막 긴 푸가로 마친다.

(해설 : Dr.Marilyn Mason 번역 : 곽 동순)

Marilyn Mason

Pipe Organ Invited Recital

year 1992 month August day 24, in the afternoon 7:30 at Sejong PAC
(Royal Performing Arts Center in Seoul)

Organized by (name of society) Sponsored by the Korean Association of Organists

White characters: price of tickets in Korean Won; where to buy tickets

(Translated from Korean by Yoojin Chung)